

광주 학폭 피해자 재심 청구 해마다 증가

학폭위 진상조사 소극적 대응 외부 기관 독립적 운영 의견도 2014년 9건서 지난해 28건

광주지역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에 불복, 재심의 요구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각 초·중·고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소집되는데,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야 할 학폭위가 사건 축소에만 급급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이월 현재까지 4년여간 피해자 재심청구 건수는 모두 5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9건 ▲2015년 7건 ▲지난해 28건 ▲올해 15건 등이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의 처벌이 약해 억울하다고 판단하면 광역 시·도에, 처벌이 과하다고 판단한 학생은 시·도교육청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이 피해자 재심청구 건수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것은 사건 발생 학교 학폭위의 소극적 대응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학폭위의 소극적 대응이 의심되는 사례는 많다. 광주 모 고교 3학년 A양도 지난달 초 학교에서 학폭위 이후 또다시 또래 친구인 B양 등 2명으로부터 심한 언어폭력을 당했다. A양은 지난해 말 B양 등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 등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호 폭행이 발생, 학폭위에서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지목돼 서면사과와 징계를 받고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다. B양 등은 당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폭력행위 금지와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 치료(3일) 조치를 받았지만, 또다시 A양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해당 학교 교사는 B양 등을 학폭위에 신고했고, 학폭위는 B양 등에게 교내봉사(3일)와 특별교육이수(3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3시간) 처분을 내렸다.

A양의 부모는 "말이 학폭위에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또다시 해당 가해 학생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면서 "가해 학생들은 이번에도 약한 처벌을 받았다. 학교 측이 해당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너무 억울해서 재심청구를 했다"고 하소연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내 학폭위가 학교폭력에 대해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등 형식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에 따라 5~10명으로 구성되는

교내 학폭위에 학부모와 교사 등 학교 내부 인원의 비율이 월등하고 경찰·변호사·의사 등 외부 전문가 비율은 낮아 미온적인 처리가 빈번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위 학교의 '학폭위'를 없애는 대신 시·군·구 산하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하도록 하고 시·도 '광역위원회'는 현재 이원화된 재심청구 심의·의결을 전담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학교 학폭위마다 심의 결과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학폭위의 공정성에 의문부호가 붙어 있는 만큼 학폭위를 외부 전문가 등으로 이원화해 공정성을 높이는 게 기대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해당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가·피해자에 따라 공정하고 적극적인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종희기자 gle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2 해질 17:40 달출 14:53 달짐 01:15

쌀쌀한 가을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떨어져 춥겠다.

광주	맑음	6/15	보성	맑음	3/14
목포	맑음	8/14	순천	맑음	6/15
여수	맑음	7/15	영광	맑음	5/14
나주	맑음	4/15	진도	맑음	8/15
완도	맑음	9/15	진주	맑음	3/15
구례	맑음	3/14	군산	맑음	4/14
강진	맑음	6/16	남원	맑음	1/14
해남	맑음	6/17	홍산도	맑음	9/13
장성	맑음	3/14			

지역	구분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1.0~2.5
	면바다	북서~북	3.0~6.0	북서~북	2.0~4.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0.5~1.5
	면바다(동)	북서~북	2.0~4.0	북서~북	1.5~2.5
	면바다(서)	북서~북	3.0~5.0	북서~북	2.0~4.0

목포	간조	만조
	03:35	09:29
여수	15:21	22:14
	11:03	05:19
	--:--	17:58

날짜	날씨	기온
31(화)	☀	5/18
11/1(수)	☀	8/19
2(목)	☁	9/19
3(금)	☁	10/18
4(토)	☀	5/16
5(일)	☀	5/16
6(월)	☀	6/18

☀	낮음
☁	산불위험
☀	보통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KIA 우승 염원 야외 응원전 KIA와 두산의 한국시리즈 4차전이 열린 29일 오후 광주시청앞에서 광주시민들이 KIA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염원하며 열린 야외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완도서 세계 최초 발견 소안해마 인공증식 성공

수컷 1마리 매달 50마리 치어 확보

환경부가 5년 전 완도군 소안도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된 소안해마(가장)를 인공증식하는 데 성공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소안도에 사는 소안해마의 성체를 확보한 뒤 치어(稚魚·부화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물고기)를 키우는 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5~6월 성숙한 소안해마 2쌍을 소안도 인근 바다에서 포획해 사육용 수조에서 출산 시기와 유사한 온도 등을 유지하며 교미와 산란을 유도한 끝에 수컷 1마리당 매달 한번 꼴로 25~50마



리의 해마 치어를 확보했다. 소안해마는 2012년 4월 소안도 일대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된 신종 후보종으로, 현재 서식지 특성과 생태 정보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일부일처를 유지하며 교미와 산란을 유도한 끝에 수컷 1마리당 매달 한번 꼴로 25~50마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누워 있는 세월호 바로 세운 뒤 미수습자 수색

직립작업 플로팅도크·해상크레인 동원 67일 걸릴 듯

목포신항에 옆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가 똑바로 세워진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지난 27일 목포사무소에서 제1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선체 직립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2014년 4월 16일 침몰한 세월호는 올해 4월 침몰 해역에서 인양돼 목포신항 부두에 거치됐다. 세월호 인양 초기 당국은 세월호 객실 부위를 절단해 직립시킨 후 조사하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미수습자 유골 유실, 선

체 변형 위험, 진상 규명 근거 훼손 등 반대 여론으로 세월호가 옆으로 누운 그대로 거치시켜 미수습자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세월호가 옆으로 누워 있는 탓에 수색 당국은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 조사를 위한 선체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선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를 바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선체 정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선체에 진입하는 조사관들의 안전 확보를 위

해서도 선체 직립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선체를 바로 세우면 외부 충격설 등 세월호 좌현의 충돌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스테빌라이저 등 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월호 직립 작업은 해상 플로팅도크와 해상크레인 등을 투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작업 기간은 총 67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옆으로 누운 선체를 육상 거치 때와 마찬가지로 모듈트랜스포터(MT)로 들어 바다에 있는 플로팅도크에 올리고, 해상크레

인 양쪽에서 선체를 들어 서서히 90도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선체를 바로 세우게 된다. 바로 선 선체는 MT를 이용해 다시 육상으로 올려 거치한다. 전체 선체 직립 작업에는 총 6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운 뒤에는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 정밀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선조위 관계자는 "선체를 바로 세운 뒤 기관실 등을 대상으로 미수습자 수색을 재개하고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 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주부터 세월호 직립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실무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물로(YOLO)이오~쇼~

경품평평!! 사은행사

1등	300만원 디지털 상품권 (1명)
2등	LG 전기 건조기 (1명)
3등	갤럭시북 태블릿PC (1명)
4등	샤오미 미밴드2 (100명)

* 상품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기원 기념품!!

손톱 깎이 세트	보조배터리
모바일 쿠폰	보온보냉병

■ 자격조건 (아래 항목중 한가지 이상 충족시 개수별 지급)

상품구분	자격기준	기념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
체크카드	최초 신규발급 이용자	당월 5만원 이상 이용시
대출	신규신행 고객 (공제안 및 예적금멤버내 제외)	실행시
정기예금 및 적금	신규가입 고객	당일 1건에 한함
출자 적립	10만원 이상 입금시	최초 1회
생명공제	신규가입 고객	중복 지급 가능
손해공제	신규가입 고객	
급여/가맹점	신규연결 고객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고객	가입시
스마트일링	신규가입 고객	
상상뱅크	신규가입 고객	

18년 1월말 상품별 유지자 '경품행사' 추천대상

예금 특판

정기예탁금	1년 2.4%	2년 2.5%	
정기적금	1년 2.2%	2년 2.3%	3년 2.4%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신만만 자유예탁금!
단 하루를 맡겨도 최고 1.6% (금액에 따라 이율 차등 적용)

행사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29일(금)
경품추첨 | 2018년 2월 예정(18년도 정기총회)

대인본점 ☎ 223-8007, 232-7251
충장지점 ☎ 223-7217, 223-7218